

龍仁文化

1985. 9. 30
第 4 號



龍仁文化院

경희한의원

원장 김애경

전화 (신갈) 8-4003

박윤철한의원

원장 박윤철

전화 2-2778

서울한의원

원장 이종현

전화 2-2554

영생당한의원

원장 강영수

전화 32-0541

이한의원

원장 이명해

전화 2-4543

제일한의원

원장 오정상

전화 2-5238

龍仁文化

1985. 9. 30
第 4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목 차

권 두 인	문화원장	5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소고	김종두	7
용 구 문 단	〈詩〉 晩秋	박상돈
	너나들이 365.....	이길호
	九月의 창공	김학민
	無題	임준규
	1919年 이후	최희면
	〈수필〉 가을의 전언	안중식
	가을이면 생각하자... 박상돈	17
저축글짓기 입선작	동전이 안겨준 보람 ... 신갈국교 6년 박미현 ...	21
꽃 꽃 이	古典의 香氣...영지희꽃꽃이 오민근	23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	이 원 석	24
Photo Essey.....	김 윤 향	28
학 교 순 례	용인여자중학교	32
기 업 순 방	海東産業株式會社	33
한국화 전시회	박 종 용	38
가로명 창안의 시말서	이 인 영	39
오달제 매화죽	자료제공 오 정 근	43
개화기 가사	충군가, 효친가.....	45
옛날 옛적에	박 민 응	48
옛문헌속의 용인 (2)	용인원정소계(龍仁園亭小憩) ... 홍순석	52
지 명 유 래	豐德에서 오신다는 豐德來外 ... 이인영	54
역사의 인물	清白吏 楊若齋	최완강
사 발 통 문	맹호도 소개	59
	모범학생 〈모현중 3년 박용익〉	59
	새경기도민상 시상	60
	저축글짓기 및 포스타 그리기회	61
	기흥면 톨으로 승격.....	62
	한국청소년연맹 용인지역단원연합체 육대회개최...	62
편집후기.....		64

머 리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국가라는 집단속에서 핵을 이루는 각 가정은 그 나름대로 가게를 이어 가며 아울러 각 가정마다는 독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아 갑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발자취를 가정에서는 가문이라 말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를 놓는 여인이 각색실을 섞어가며 한뼘 한뼘 집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이루어 집니다. 역사는 사건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왜곡되게 하거나 인위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말살하려고 할 수도 없으며 만약 하려고 한다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우월감이나 긍지를 갖기도 하고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과오를 찾아 현재의 생활에서 반성하며 개선도 할 수 있고, 미래 생활의 이정표를 삼어 현재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화 하며 족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를 자기생활에 부합하도록 기록하며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을 다반사로 일삼는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역사를 왜곡하는 좋은 표본이 될 것 입니다. 역사는 모든 사건들의 기록들이기에 즐겁고 통쾌하고 보람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괴롭고 원통하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아무리 나쁜 기록이라도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게되고 그 많은 사건들을 연구 검토하여 현재의 생활에서 방향을 찾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4천년이나 그려져 내려오는 역사라는 그림은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였기에 왜곡 수정 변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영국 런던에 우중충한 낡은 건물들이 안개 비 속에 멍하니 보일때 유령의 집 같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만 몇 일을 두고 영국 전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역사를 어느 정도 현장과 결부시켜보면 수백년 혹은 기천년 전에 지은 집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위대하고 존엄성 있게 보이기 보다는 무엇인가 역사를 속삭이는것 같은 감회가 들어 친근감마저 느끼게하여 줍니다. 영국사람들은 집을 짓더라도 하루 아침에 짓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하면서 지으며 때에 따라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완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을 보았을때 영국은 영국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간다고 느끼게

합니다.

세계 2 차대전때 독일사람들이 유대인 학살을 위하여 수용소를 짓고 가스실을 마련하여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 학살의 현장을 관람할 수 있으며 그때 그현장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그 부끄러운 현장을 말끔히 치웠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의아해서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놀라웁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은 없이 할 수 있으나 역사는 말살하지 못한다. 독일 사람이 2 차대전때 유대인에게 지은 죄는 역사인데 그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 자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죄를 되풀이해서 짓지 말라」는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보다는 생각이 앞서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독일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면의 사진, 그밖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유물들을 진열해 놓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유대인을 도와 생명을 구해준 각국의 은인들의 비석을 세워 놓았고 각국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10 분간의 슬라이드를 상영해 주면서 자세하게 학살현장을 박진감있게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입구 정면에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표어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위에 적은 3개소 영국의 낡은 건물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와 가스실 이스라엘의 유대인 학살기념관 등에서 과거 역사의 가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역사가 바탕이 되어 오늘에 그들이 생존함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려는 독일 사람의 의지와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소수 민족으로 신의 선택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과거 자기 민족을 학살 말살 하려 든 원수이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들 또한 비범한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임을 당한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죽인 독일인이나 모두가 멍 있는 사람들임을 느끼게 하며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멍진 연기로써 아름답고 보람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 까하는 생각을 해야될 때 입니다.

韓國 靑少年의 意識構造 小考

龍仁 女子中學校 主任教師

金 鍾 斗

올해는 세계 청소년의 해다.

청소년은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의 미래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생활상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패전으로 황무지가 된 덴마크를 구국, 흥국(救國, 興國)의 길로 이끈 구르트·빗히는 「먼저 덴마크 청년들의 가슴을 갈라. 그러면 그들이 덴마크의 황무지를 갈아 옥토로 만들 것이다」라고 했고, 우리 민족을 구국·독립으로 이끈 도산 안창호(安昌浩)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므로 2천년대를 눈 앞에 둔 지금, 우리 사회의 내일을 바람직하게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을 파헤쳐 보고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창조해 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청소년상은 삼강오륜에 기초한 「장유유서」(長幼有序) 속에서 오직 어른들을 공경하며 효심이 지극한 유교적 생활 규범에 근간을 두었다. 그러나 전통규범이 무너지고 자유시민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청소년의 의식구조 또한 크게 달라졌고, 더구나 성인과 청소년 집단 사이의 심한 가치관의 괴리현상(Anomie)은 큰 세대차이를 가져 왔다.

청소년들은 때로는 어른이 주저하는 일을 겁없이 해내는 박진력의 소유자요, 또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부정적인 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는 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최근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 충동과 유혹에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각종 비행을 유발하는 일, 성인병에 물드는 일 등은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청소년 문제를 불리 일으키게도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사회가 너무 부유한 것도 불유쾌하다……」라고 불평하는 현상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의 「이유 없는 반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은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을까?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청소년들은 특수의식(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상적 특수집단으로서 존재하고 대우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집 변수칸 청소 빗자루 한번 안들면서도 사회 봉사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주장하고 행동한다.

둘째, 이들은 성인 의식(成人意識)을 갖고 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단계지만, 신체적·지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자라고 성인과 동등하게 독립하여 활동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행동한다. 미국같은 사회는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 우리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좀 더 다른 일면이 있을 수 있다.

세째, 이들은 피해의식(박탈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대접받아야 하는 만큼의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다.

네째, 양가의식(兩價意識)을 갖고 있다.

이들은 행동과 의식에 있어 때로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은 성(性)에 있어 지극히 자유를 회구하면서 상대방의 성(性)에는 엄격한 폐쇄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가정 및 사회관계 가치관에 있어서 구조에 접근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히 동양적·보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들은 지극히 동조적(同調的)이고 감정지향적(感情指向的)이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부모와 선생님 보다는 친구와의 의리를 더 따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동정적이며, 싸움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며, 이성보다도 감정에 쉽게 움직이는 일면이 있다.

이상에 살펴본 청소년의 실상은 극히 단편적인 감이 있으나, 이것은 한국 성인 사회의 사회구조와 의식구조에 깊이 연계되어 있다. 소독항상에 따른 소비·여가지향성,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규격화·기계화된 사회속에서 사랑과 개성을 잃고 방황하는 생활상, 물질만능주의, 출세지향성, 이기적개인주의, 무사안일, 권위주의, 퇴폐풍조, 요령, 기회주의 등 기성세대와의 갈등, 부모·가정의 퇴폐생활, 체면과 형식주의, 1차집단적 폐쇄주의, 목전실리 추구의 경향등 불만스러운 성인사회의 의식구조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사회변동은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인 만큼,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성인사회의 자기 개혁과 청소년 사회의 바른 인도로 가치관의 격차를 좁혀 범국민적 공통 분모를 향해 의식구조를 접근시켜야만 할 것이다.

특히, 2천년대의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더욱 급변하는 사회변동을 겪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기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앞으로 사회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기성세대보다 더욱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들은 이것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청소년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건실한 미래를 약속하는 지름길인 것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할 막중한 과제인 것이다.

晚 秋

박 상 돈

가슴적시는 한기(寒氣)
 옷깃을 여미고
 아련한 그리움에 등(燈)을 당기면
 창너머, 속절없이
 한숨으로 지는 앞세

뜻모르게 서려오는 짜릿한 애수(哀愁)
 하늘가에 맴도는
 다정한 모습이여
 결코 싫지않은 손길 나누며
 결별을 담은 무언의 눈빛
 이제 모두가 떠나야 하리

남은 입김의 온기모아
 착한 의자를 영글리고
 한껏 화려히 산야를 수놓는
 눈부신 마지막 예술의 여유

금빛머리 날리며
 황혼을 지나는
 나그네
 나그네여.



너 나들이 365.

李 佶 浩

서너개의
보라빛 햇살이 비출 때
차분한 언어로 대답하리.

명지바람 불어
라일락 꽃잎
멀리 머물리 훔날리던 날
바로 오늘

노오란 엽서위에
초록의 물결
마구 그려놓고

우리들의 노래는
청아한 목소리로
너나들이 365
너나들이 365.



九月의 窓空

김 학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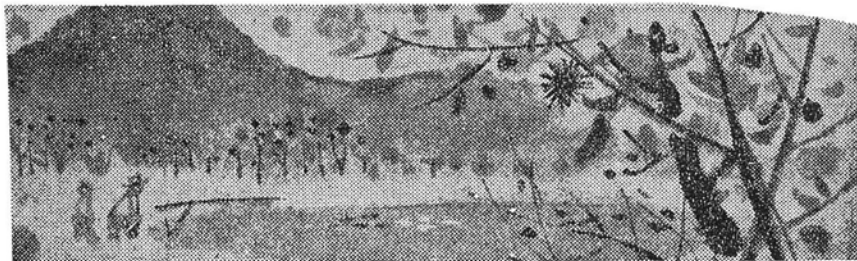
푸른빛 하늘의 싱그러움 속으로
아련히 피어오는 포근함과 심오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욕망을 뚫고
현실을 초월하는 젊음의 이상이
거기에 있다.

마—악 젓먹으려는 아가의 설레임과
막 피어나는 소녀의 썩갯함이
거기에 있다.

평화로운과 순조로움이 어우러져
세상의 희노애락을 다 삼키는 재주가
거기에 또한 있다.

끝없는 표묘(標渺)속에 가장 낮은자리에 서서
영원한 그곳에 머무르려다.



無 題

林 峻 奎

꽃잎지듯
꽃잎눅듯
지는 해의 어스름으로

꽃잎이 바다로 달려가
섬이 바다에 눅는
아름다운 배치로 눅고싶다.
바다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살(肉)들이 모여
어둠을 배우고 있는지 아는가.

두려워라
떠다니는 것들의 눈(目)들이
불편한 꿈자리에서
꽃잎은 피어나고
얼마나 어설픈 헤아림으로
사랑을 했던가.

西녘 하늘이 가까워라.
바람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生涯는 고품을 노래하며
허물리는데
두고 갈 것이 무엇이 있더냐.
모래같은 女子가 오늘을 즐기고
우리네 마을엔 색깔만 가득하다.

눅고 싶어라.
이름 없다는 것은
아름다운 고품이고저
꽃잎지듯
꽃잎눅듯.



1919 年 以 後

崔 沅 江 (熙 冕)

세상이 開闢을 하듯
 우렁찬 만세의 홍수가 밀려오고
 들녘은 우뚝 우뚝 꽃밭이 되어도
 암흑의 饗宴은 끝이 없을 줄 알았어라.

한여름 태양이 정렬을 발하고
 흰옷, 흰고무신이 亂舞하여
 長安은 온통 축제의 도가니

은 物象이 잠든 그날 아침
 孔穴을 확대되어 우릴
 놀래여
 놀래여

피로 일룩졌던 밤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 짓는 것은
 하얀옷을 즐겨 彩色하지 못하는 진통, 아픔.

참된 가을처럼
 우리의 所望이 이루어 지는날은
 그날이여 오소서
 그날이여 오소서
 나의 祈禱가 끝나는 날.



가을의 傳言

安 鍾 植

金兄!

언제까지도 기승을 부릴듯 싶던 炎帝께서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나 봅니다. 몇날을 두고 쫓꿈거리던 비가 그치더니 하늘은 꼬마 아이의 키 만큼은 더 높아지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도 옥타브를 더 높이 운듯 싶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아,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아, (中略)’ 未當의 노래가 이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가을! 형과 내가 그리도 좋아했던 그 가을이 소리없이 찾아와 무더위에 지치고 먼지와 땅에 찌들어 혼탁해진 영육에 작지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속삭입니다.

“깨어나시오! 들뜬 가슴을 가라 앉히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보시지 않겠소? 수많은 구호와 갈채 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휩쓸리며 박탈당한 自我를 되찾으란 말이오. 끝이 가까왔다는 의미는 아니오. 우리가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마지막이고, 끝을 맺는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 함이오. 끝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오. 잠시 눈을 감고 外部로부터의 소리에 귀를 막고 외관으로 보이지 않고, 길으로 들리지 않는 작은 물체, 작은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소? 발뿌리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 바위틈을 비집고 수줍은 웃음을 보이는 이름 모를 들꽃의 녀누리들을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오. 그것이 당신의 매마른 삶에 윤기를 주고 다 풀려버린 태업을 다시 감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당신은 너무 오랜동안 잊고 있지 않았소? 이제 눈에 보이는 부질없는 이익에 현혹되어 정말로 귀중한 것을 잃고 있는 줄도 모르는 무지목매 함에서 깨어나시오. 깨어나시오!”

金兄!

가을은 그렇게 작지만 매서운 외침으로 내게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오늘밤 가을이 내게 주고 간 메시지를 형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펜을 굴립니다. 까까머리 시절 읽었던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글이 생각나지 않으시오? ‘꿈의 시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고 콧날이 시도록 좋았던지……. 그러나 그 글을 이제 다시 읽는다 해도 열일곱살때의 그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다시 맛볼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꽤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이 成長한다는 것이 정신적 타락이나 俗物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했던 나 이지만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얼마나 때문고 진부한 욕망으로 충혈된 눈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못내 부끄럽고, 불안한 느낌을 갖는 것은 결코 기우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옳게 살아야 한다. 옳은 것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백사람이 그릇된 것을 주장하더라도 분연히 일어나 ‘아니오!’ 라고 올바른 주장을 펼 수 있는 용기 있는 知性이 되어야 한다. ‘좋은게 좋지’ 하고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아라. 좋은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등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배품을 받기 보다는 他人에게 배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金兄!

나는 오늘도 나의 아이들에게 많은 주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 있을 때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작은 몸뚱아리를 더욱 작게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아이들에 대한 주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 설흔을 넘었고 처 자식이 딸린 몸이므로 늘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더욱 부끄럽고 슬플 뿐입니다. 얼마전에 고향의 아버지께서 ‘三省熟行’이라는 글을 보내셨습니다. 매사에 신중히 言行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어수선하기만 한 世態속에서 言行을 조심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깊은 뜻에는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하겠지만, 열정도 패기도 잃어버린채 나날의 호구(糊口)에 정신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소시민(小市民) 이어야만 한다면 이 또한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日前에 TV를 통해서 영화 ‘빠빠용’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自由를 向한 불굴의 집념과 意志, 두 主人公의 渾身の 연기에 매료되어 밤 늦도록 시청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사중에 “인간이 意識하지 못하고 범하는 죄악중에 가장 큰 罪가 人生을 낭비하는 罪”라는 말과 유죄를 인정한다며 돌아서는 주인공의, 서글픔을 가득 담은 눈망울은 꽤 오랜동안 남게 됩니다. 도저히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삶을 認識하지도 못하면서 봄벌레 눈 녹듯 슬금슬금 죽이고 있다는 것은 정녕 소름끼치도록 두려운 일이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곡 “Free as the wind”가 흐르며 망망대해의 물결속에 자신의 백발과 주름 투성이의 자유인 빠빠용에게 다시 찬사를 보내며 또 하나의 自由人이었던 ‘이명준’을 떠 올립니다.

金兄!

10여년전에 우리의 가슴을 몽클하게 했던 최인훈의 “廣場”을 다시 펼칩니

다. 주인공 이명준은 절규와 같은 獨白을 다시 적어 보고자 합니다.

“광장에서 敗했을 때 사람은 동굴로 후퇴하는 것. 사람은 항상 敗한다. 다만 賤하게 敗하느냐, 얼마나 偉大하게 敗하느냐가 문제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좋다. 내 이름도 사양하고 싶다. 수억마리 인간중의 한 마리면 족하다. 다만 나에게 한뼘의 광장과 한 마리의 벼를 달라.”

결국 명준은 한 뼘의 광장. 한 마리의 벼마저 빼앗긴 채 完全한 自由(?)를 찾아 천길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그의 메시지는 살아 숨쉬고 있으니, 그는 죽음으로써 살아 남은 者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두운 바다밑을 떠돌아 다니고 있을 그의 영혼을 달래려 한잔의 술을 준비합니다. 맑은 술잔위에 헬썩한 그의 얼굴과 나의 얼굴, 그리고 그리운 형의 얼굴을 담습니다. 우리의 사랑, 슬픔, 분노와 고독을 담아 함께 마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은 명준과 나, 金兄의 젊음을 위한 謝肉祭의 祭酒가 될 것입니다. 건배합니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은 인류의 平和를 위하여!)”

金兄!

아직은 암록색을 띠고 있는 나뭇잎들도 머지않아 진홍빛으로 울긋불긋 물들어 갈 것입니다. 가을을 맞으며 그 다음에 올 겨울을 미리 생각하게 됨은 지나치게 조급하게만 살아오며 몸에 배어버린 습성때문일 것입니다. 노란 카피트를 깔아 놓은듯 아름답던 大成路를 형과 함께 걷고 싶었는데 兄은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金兄! 우리가 作別하던 밤 兄이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아직 잊지않고 있습니다. 수만리 하늘을 사이에 두고 있다해도 우리의 尊敬과 사랑이 변치 않는한 우리는 늘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目前的 利益에 급급해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기 보다는 고민하는 理想主義者가 되자면 兄의음성은 아직도 내 귓전에서 생생히 울리고 있으니 난 지금 조금도 외롭지않을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밤 평온한 마음으로 별을 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헤는 별은 兄도 함께 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하루가 새롭고 신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兄의 안녕과 學業에 큰 성취가 있기를 빌면서 두서없는 글로 가을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을이면 생각하자

박 상 돈

초목의 잎새에 내려앉는 한줄기 빛에서, 스치는 바람결에서, 높아만 가는 하늘에서, 우리의 저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잠자던 감각이 눈 떠 가만히 탄성을 지르게 하는 계절.

가을.

누군가 말했듯이 가을은 우리를 외롭게 한다.

가을은 우리를 뜻 없이 슬프게 한다.

가을은 이제껏 쌓여진 우리의 과거를 회억하게 하여 자신의 둘레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게 해준다.

그러나 가을이 가져다 주는 고독과 비감과 마음의 방황이 결코 빈 들녘처럼 허허롭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 눈물겹도록 쓸쓸한 영혼은 우리로 하여금 몇줄의 싯귀를 떠오르게 하고 어느 철인의 사상이 함축되어진 언어를 공감케도 하며 참으로 오랫동안 책을 읽게도 한다.

어쩌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와 삭막한 현실에 대한 각성이며 매마른 가슴 발을 기름지게 일구어 자신을 살찌우는 성숙의 과정이리라.

아 - 아 모든이여! 가을이면 생각하라.

두근거림속에 기다리던 어느 봄날의 벽찬 희망을 돌이켜보고, 폭염의 백사장과 검푸른 파도, 무성한 녹음속에 뻗어 오르던 여름날의 정열을 반추하며, 다가올 긴 겨울동안 추위를 잊고 지낼 여러가지 일을 계획하여, 가까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차리라.

그리고 그 보다 더 오랜 지난 날, 철없이 뛰놀던 어린시절의 추억과, 언제 이던가 이름 모를 시골역에서 잠시 마주친 눈이 서늘하던 소년이나, 하얀 얼굴이 유난히 앳되고 귀여웠던 소녀를 남겨 둔채, 흔들리는 창가에서 공연히 아쉬웁고 막연한 기대로 설레어지던 학생시절을 그리워하며, 한 잎의 낙엽에도 가슴이 저려와 무작정 어디론가 먼 여로를 지향없이 헤메고 싶은 마음에 뒷산에 올랐을 때, 아지 못할 미래로 이어진 세월처럼, 이득히 산골짜기 사이로 뻗어있던 하얀 길의 사춘기도 못내 그리워 하라.

또 우리의 운명처럼 쏟아져 내리던 빗줄기 사이로, 말없이 긴 머리카락을 흘날리며 돌아서 가던 여인을 못잊어하고,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겨울날, 두줄기 발자국을 뒤로 남기며 인생의 암흑속으로 묵묵히 사라지던 사나이의 뒷모습을 눈물겨워 하라.

그리하여 가장 고독하다고 여겨질만큼 외로워지고, 가장 서글프다고 느껴질만큼 슬퍼지며,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보다 더 쓸쓸해지고 싶거든 서산 마루에 서서히 황혼이 걷혀질 무렵, 청운의 꿈을 다 흘려버린채 찌든 생활의 길을 따라 떠나버린 친구나, 잘못된 사랑을 안고 스러진 어느 소녀의 애달픈 이야기를 되새기며, 거기 고목과 잡초 우거진 숲속의 무덤가를 거닐어 보라.

강물처럼 흐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다면 벼개깃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여명이 하얗게 창을 물들일 때까지 밤새워 긴사연을 적어도 보라.

무릇 인생이란 그 얼마나 고뇌롭고 허망한 것이냐?

티끌만한 자의도 없이 하나의 존재로 세파에 던져져, 다람쥐 쳄바퀴 돌듯 숙명이라는 신의 굴레속에 반복되는 나날을 되풀이 하여 살다, 종내는 한줌의 재로 물위에 뿌려지거나 잡초에 묻히어 외진 산 한기슭을 외로움으로 지키고 섰는 우리 인간의 자체가. 또한 우습지 아니한가?

아무 미련도 가지지 않은채 무심코 내어 뿜은 일말의 담배 연기처럼 덧없는 인생길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질시하며 아웅거림은. 그러나 인간이여!

우리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외길을 걸으며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체념하면서도 그 저버림이 안겨주는 환경에의 평범한 적응력과 평범으로의 환원속에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것도 아니나 그토록 무의미 하거나 헛된 것만도 아님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유의 형태로 존재함이 있겠는가?

또한 이세상에 완전한 무로 그쳐버림이 있겠는가?

단지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정의요, 어떤 형성체 일수 있으나 마침내 사라질 것을 암시함이요, 지금의 부재는 이윽고 무엇이든 생성될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우리의 눈에 뜨이는 것은 오직 순간에 불과한 유와 무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에게 어찌 완벽한 성선설이나 성악설이 합당하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요 그 두가지 마음이 함께 잠재하는 것이어서 환경과 대상에 따라 선으로도 악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상반된 것이기는 하나 이해의 차이가 다를 뿐 충동과 관심이라는 근원처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더위에 지쳐 사고가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여 가을을 노래하라.

그대의 노래가 아스라하게 멀어져간 지난날들에 대한 그리움이어도 좋다. 고독해질 수 있도록 노래하라.

황금의 과문을 일으키며 바람 불어오는 언덕에서, 우수같은 낙엽이 어지러이 휘날려 나무끼는 나무 아래서, 사랑하다 스러져간 뉘들이 합주하는 풀벌레의 울음이 처량하여 괜시리 달빛마저 애처롭게 여겨지는 월야의 뜨락 한구석에서.. 한숨겨워 지려거든 가슴 밑바닥에 숨겨져 장마철 습기로 파랗게 곰팡이가 서려 있던 가장 여린 감성의 한 자락을 찾아내어 신선한 미풍과 맑은 햇살을 쬐이고 그대가 지니고 있는 갖가지 사념의 색깔로 물들이라.

순수한 꿈속에서 가꾸어지던 연보라빛 소망을, 젊은 시절 한 여름의 태양보다도 뜨겁게 타오르던 붉은 정열을, 라일락 향기속에 맺어지던 핑크빛 로맨스와 후일 임종을 목전에 두고 물거품처럼 사라진 발자취를 더듬어 볼때의 그 회색빛 암울함을.....

아 - 아 잠초 무성한 자갈밭과 흡사한 우리의 사회에서 배말랐던 감정을 일으켜 외로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으며 떠날 수 있음은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외로워할 수 있음은 각박한 투쟁의 현실에서 숨들려 자신을 돌아 볼 여유가 남았음이고 슬퍼할 수 있음은 아직 오욕과 모멸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 한켠이 간직되어 있음이고 우리가 떠날 수 있음은 우리를 얽매어 놓은 짐착에서 벗어날 용기가 갖추어져 있음이다.

속진의 세 파에 휩싸이지 않으며 그들이 가련하여 안타까와 하는 아픔이란 참으로 깨끗하고 숭고한 슬픔이요 고독이 아니겠는가?

우리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우리와 더불어 시름겹게 지내다 어느날 문득 다만 우리의 가슴에 아쉬움과 그리움 만을 심어주고 조그마한 부담도 의혹의 자취도 남겨두지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이나 미련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사람의 뒷모습은 진실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모든이여!

정녕 그대들에게 권하노니 가을이면 생각이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에 대해 깊이 사고하라.

계절이 가져다 주는 쓸쓸함과 울적함일랑 긴 밤을 통하여 지금까지 빛을 뿌려 주었던 사상가와 철학자와 문학가들과 함께 그네들 내면의 동산을 혹은 샘물처럼 맑고 시원한 영의 호숫가를 산책하며 공감과 동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일면의 깨우침으로 승화시켜 우주의 정연한 질서와 섭리를 이해하므로 모든 탐구의 궁극적인 목표요 모든 가르침과 도의 종착지인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여름을 지낸 철새가 먼 세상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날 때, 하나의 나뭇잎이 어떠한 비탄과 원망도 없이 가지를 떠날 때, 온갖 미물이 동면과 죽음

음의 세계로 순순이 떠날 때 그대들도 함께 떠나라.

아 - 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만남을 이룰 수 없으리니 이 가을엔 나 또한 떠나리라.

환멸과 애착을 동시에 느끼는 생활에서 미움으로 얻어지는 갈등과 허전한 사랑의 목매임에서, 내부속에 꿈틀거리는 구토의 위선과 고개 숙이지 못하던 작은 아집에서 마저도…………



동전이 안겨준 보람

신갈국교 6년 박미현

‘짚랑 짚랑’

오늘도 가게앞을 지날 때마다 짚랑 짚랑 동전 소리가 내마음을 유혹하였다.

“미현아 저기 가게있다. 들어가서 뭐좀 사먹어.”

언제나 변함없이 날 유혹하는 동전의 달콤한 속삭임에 가게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나에게

“안돼 미현아 동전의 유혹에 빠지지마 너는 언제나 불어나는 나를 보며 보람을 느끼곤 했잖아.”

하고 통장이 나에게 소리쳤다.

“맞아 동전아 너는 가게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은행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야지”

하며 나는 언제나처럼 가게앞을 지나쳐 버렸다.

은행에 들어가 동전을 예금하니 동전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 좋은듯 방그레 웃었다.

“그것 봐 동전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니 얼마나 좋으니.”

“정말 아까는 내가 잘못했었나봐. 이런 좋은 곳에 나를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동전의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조금씩 불어나는 내 통장을 보며 은행을 나오자 내마음속에 또하나의 보람의 동전이 짚랑하고 떨어졌다.

은행에서 만난 친구 영희와 은행을 나오자 내통장과 친구통장의 대화소리가 들렸다.

“애 너 어디 아프니?”

“아니야 배가 고파서 그래.”

“배가 고프다니 너는 방금 은행을 나왔잖아.”

“은행을 나왔지만 내 주인 영희는 돈을 예금하지 않고 빠려고 은행에 갔었 던걸. 매일 그러니 통장이 비어 배가 고파. 너는 어떡니?”

“응 내주인 미현이는 조그만 돈이라도 아껴서 은행에 예금하니까 나는 아주 배가 불러.”

“너는 좋겠다. 내 주인 영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통장의 대화를 듣고 난 나는 친구의 통장이 불쌍해져 친구에게

“애 영희야 너는 돈을 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아껴써서 예금 좀 하렴.”

“애는 남의일에 왜 상관이니 내통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며 화가 난듯 먼저 가 버렸다.

“저러니 통장이 배고파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내 통장을 들여다 보았다. 자그마한 액수지만 늘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척 뿌듯하였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조금씩 절약하여 은행에 예금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전에게 질때도 있었지만 자꾸 참다보니 동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동전을 이길 수 있게되었다. 동전의 유혹을 이겨내고 통장의 액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보람이라는 동전이 하나, 둘 생겨났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내친구 영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절약하고 저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돕고 외채를 갚는데 힘써야겠다. 비록 동전이 나를 유혹했지만 보람의 동전이 내마음 속에 안겨준 은혜는 잊지 못할 것이다.

꽃 그 傳說

鳳 仙 花

赤 : Touch me not (손대지 마세요)

黃 : 短氣

雜 色 : 경멸의 감정

봉숭아, 소녀들이 손톱을 빨갛게 물들이는 꽃. 희랍의 한 女神이 영동한 죄의 형을 받고 「올림프스」(神들의 거주지)를 쫓겨났다. 쫓겨난 그녀를 철저히 조사해 봤으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冤罪를 풀기위해 몸을 죽여 봉숭아가 되어 누가 건드리기만해도 주머니(袋)를 벌려 안을 보여준다. 소녀들이 꽃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꽃잎이 활짝 벌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한다.

古 典 의 香 氣

영지회 꽃꽂이 용인지부

사범 오 민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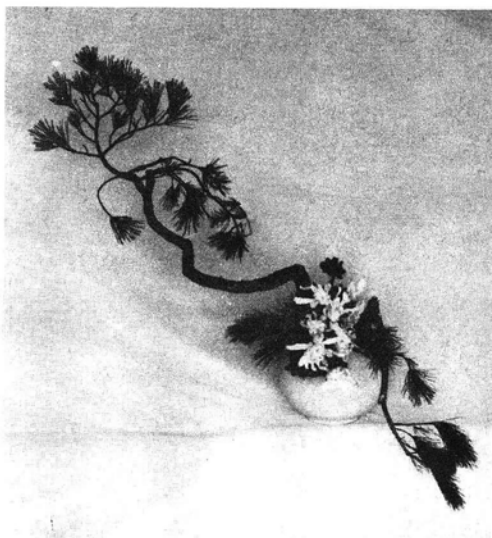
素 材 : 소나무 현대국(천사)
자색소국

花 器 : 백자 화병

花 型 : 경사 3 응용

대자연을 머리속에 담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 언제라도 모자람없이 표현해 보고 싶다.

푸른 정맥이 흐르는 대자연의 풍요로움에 나의 꿈 펼치며 아름답고 멋 스럽게 조화시켜 삶에 지친 영혼을 정화하고 여유를 얻어미를 추구하여 새로운 사실을 전개하고 새로움과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여 높은 산 모진 바람을 이기고 바위 틈에도 벼랑끝에도 뿌리를 내리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고고하게 자랑하는 그 자태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며 구도자와 같이 순종하여 보다 윤택해지는 삶에 향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 꽃 는 법 》

영원 불멸하다는 뜻을 지닌 소나무에 특징을 잘 살려 1주지(信)를 생동감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왼쪽앞옆 50°~60° 위치에 고정시킨다.

3주지(仁)는 오른쪽앞옆 80°~90° 위치에 꽃아 안정감있게 처리한다.

현대 국화는 천사란 품명을 갖고 있을만큼 청순하고 고결해 보이는 국화를 정 가운데 포인트를 1주지에 $\frac{1}{2}$ 로 꽃아 주고 다음 각각 $\frac{3}{4}$ 으로 가운데 모아 꽃는다. 자색 국화로 빈 공간에 조화시켜 애교있고 우아하게 꽃아 준다.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

龍仁商業高等學校

李元錫

서양 미술사(西洋美術史)에서 조각(調刻)의 역사(歷史)를 3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비유한다면 그 하나는 기원전 5 C경 고대 그리이스의 엄격했던 조각가 피디아스, 또 하나는 절정기(絶頂期)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를 주름잡았던 만능인(萬能人) 미켈란젤로(Michelangelo), 그리고 남은 하나는 19 C 후반에 나타난 프랑스 예술의 거장(巨匠)인 아귀스트(Auguste) 로맹(Rodin)이라고 하겠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조각가로서 일생(一生)을, 예술을 다듬는 생활로 보낸 그의 명성은 후세인들의 머리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로맹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대 조각과 그 이전과를 구분하듯 로맹은 근대 조각의 선구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로맹 시대는 확실히 제 2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의 수제자인 부르델, 그리고 마이올의 조각시대는 미켈란젤로 이후 시들었던 예술의 한 분야가 불을 붙인듯한 발전을 보였다.

낭만주의(浪漫主義) 이후의 프랑스 조각계는 미켈란젤로 이래의 최대의 작가 Rodin을 낳는데서 큰 영광을 차지한다. 그는 미켈란젤로 이래 침체 일로의 조각예술(調刻藝術)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진정 그것의 예술에로의 길을

연 거장이었다. 즉 로맹은 당시의 조각이 한갓 표면적(表面的)이요, 그저 곱게만 표현하는데 빠지는 풍조(風潮)를 타파하고 철저한 사실주의(寫實主義)적 태도(態度)로부터 출발하여 자유로이 동작하며 운동하는 model을 관찰하고 그 순간의 미(美)를 포착, 조각에서 광(光)의 효과를 증시하여 회화에서 인상주의(印象主義)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바를 보여주고, 관념적(觀念的)인 미(美)의 형식(形式)으로부터 떠나 산인간, 그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리하여 사실에 비롯된 훌륭한 기교(技巧)로 되는 표현과 깊은 정신성(情神性), 거기에 그 자신에서 오는 풍부한 時情이 곁들여져 조각을 장식적(裝飾的)인 것 또는 건축의 부속물과 같은 처지로부터 해방해서 그 자체 자유한, 독립된 예술로 확립시켜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새 조각의 위대한 개척자로서 20 C 조각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42년 11월 12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마을에서 초라한 말단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수학을 싫어하여 항상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놈이라고 내놓여졌다. 그러나 가풍(家風)에서 받은 고집과 강한 인내심(忍耐心)이 로맹을



키워갔다. 항상 독립(獨立)하기를 원했던 로댕은 어떤일을 완성(完成)하는데 있어서 완고하고도 불굴(不屈)의 정열(情熱)과 욕망(欲望), 그리고 그

의 생활고(生活苦)를 이겨 나가려는 구두쇠 정신이 세계의 명성을 한 몸에 받는 조각가로 만들었다.

로댕은 일생을 통하여 근면(勤勉)하



기 이룰데 없었고 겸손(謙遜)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연에 대하여 순종(順從)하면서도 내면(內面)에 흐르는 가슴은 굳굳한 조형(造形)의 탐을 세우려는 예술가의 정신을 배양해 갔다. 초등학교 시절 그림 그리기만 좋아하던 그는 집안 형편상 미술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직업학교에서 「칼포」의 영향을 받아 후일 사실적(寫實的)인 수법(手法)을 펼친 것도 인연이었으니 좀 더 격조(格調) 높은 미술학교(美術學校)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으나 3번이나 낙방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다가 그는 장식미술학교(裝飾美術學校)에 다니게 되었다. 로댕이 자기가 성취하려는 의도를 처음으로 보인 1864년 「코가 부러진 남자」가 살롱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낙선 되었다. 이보다 일찍 로댕은 바르예(Barye) 문하에서 잠시 일했는데 표면(表面)에 주름을 강하게 잡는 수법은 이 바르예의 영향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댕의 작품(作品)은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묻혀 있었던 조각의 대법전(大法典)을 재건(再建)한 기념탑이었으며, 조각의 일원성(一元性)을 훌륭히 확립하면서 견줄 곳 없는 정열(情熱)과 역량(力量)에 의해 서서히 굳어진 견고한 화강암같은 것이었다. 즉 마네 모네가 회화를 재정의(再定義)했던 시기에 조각에 대하여 再 정의했던 것이다.

우리가 가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그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방식(方式)대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잡기 어려운 시각적(視覺的)효과를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의 과정—죽은 물체가 예술가(藝術家)의 손을 통해 생명(生命)을 얻게 되는 기적—을 강조하려고 했다. 187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5년간 기념비 조각을 제작하였다. 그 후 1896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로마와 피렌체 등의 미술관을 순방, 특히 미켈란젤로 작품에 감명(感銘)을 받았다. 그의 충동은 인체(人體)의 입상(立像)에 대한 구상(構想)이었고 그의 친구인 장교가 로댕의 계획을 돕기 위해 골격(骨格)이 발달된 부하 한명을 모델로 소개 받아 자연속에서 생동(生動)하는 인간의 순수성(純粹性)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 작품이 「청동시대」이다. 보불 전쟁의 패배로 비통에 쌓여 있었던 시기에 이 작품을 통하여 조국의 선생과 젊음의 패기를 이 청년의 입상에서 찾으려 하였다.

2년간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을 브뤼셀 전람회와 파리 살롱에 출품(出品)하였으나 예상하지 않은 악평, 모델의 원형을 떠낸 것이라고 전원이 거절되었다. 그 후 자연주의(自然主義)의 예술이 점차 굳어지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879年 그는 드디어 중요한 임무를 위탁받았다. 그것은 파리 공예(工藝)미술관(美術館)의 문을 만드는 일이었다. 로댕은 그 의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옥문」이라 불리는 야심작인 종합작품을 계획하였다. 그는 반평생



을 소요하였으나 미완성, 그러나 구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사람」 「입맞춤」 「아담」 「이브」 등 걸작이 속출, 독립된 작품으로 살롱에 출품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품은 원래 지옥문의 상단 중앙에 설치된 조각이었다. 1904년 살롱에 출품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거상으로 확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크기에 따라 4 종류가 있다. 이 작품의 명칭도 로댕의 작품을 주조해온 「리디에」에 의해서 임의로 붙여진 것이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 작품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다. 지옥문 상단에서 하단부의 물, 바다를 응시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다. 말하자면 처참한 지옥의 정경을 바라보며 인간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어쩔수 없는 숙명적인 무거운 고치에 빠져 사색에 잠겨있는 듯하다. 그러나 육신은 활력과 정력이 넘쳐 인간의 강건한 활기와 깊은 정념이 한데 어울려 이 인체적 형상을 통해서 소용돌이 치는 인체의 격류속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같은 중량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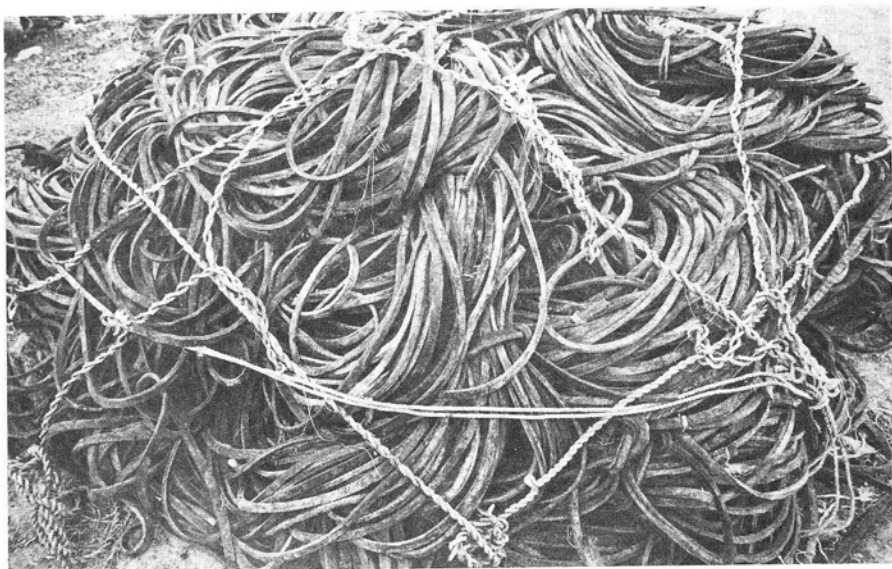
이 「생각하는 사람」의 기원은 적어도 간접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 미술의 초기 양식(樣式)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잔틴(Bezantine)식의 상아로 만든 사색하는 아담일 것이고 또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특유의 초인적인 육체의 움직임이 정지해 있는 순간, 피레의 〈밀로〉에서의 긴장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아담이다. 또 어떤 면은 프로메테우스이고 또 다른 면은 육체의 열정(熱情)에 포로가 된 야수이기도 하다. 미켈란젤로의 누드처럼 옷을 벗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비굴성(卑屈性)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世人의 찬양속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종하면서 고통과 인간 조건의 비참함, 운명을 거역하기 힘든 인간의 무력함 등을 과감히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열정적 사랑, 인간의 아름다움, 한마디로 인생의 대변자이기도 했던 그는 1917년 자신의 작품 전부를 프랑스 정부에 기증한 뒤 영원히 눈을 감았다.

현대 조각의 선구자임을 의심치 않는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작품 전시회(7.25~8.29 국립현대미술관)는 수많은 우리 나라의 조각 애호가들을 감동시키는 데 충분하였으리라. - end -

Photo Essey

김 윤 항



틀과

格式의 도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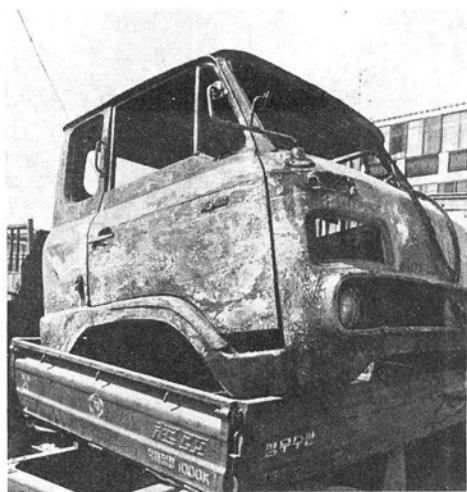
얼키고 설켜져 꼬여진

풀리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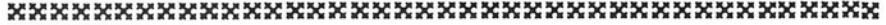
그러나 풀어야 하는것

그것은 ………

험난스러운
기나긴 旅情의
끝에
우뚱서버리고
만.



그리고
무너져
갈기갈기
뜯겨진 그속엔
億劫이
숨어있고
曲折이
감춰있네.



묵묵히 흐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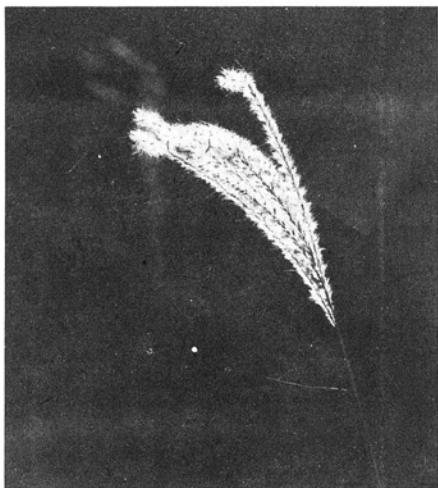
그것보다 無味하고 뜻깊은 것이 있으랴.

이제 힘겨운 肉身을

잠시나마 휴식의 기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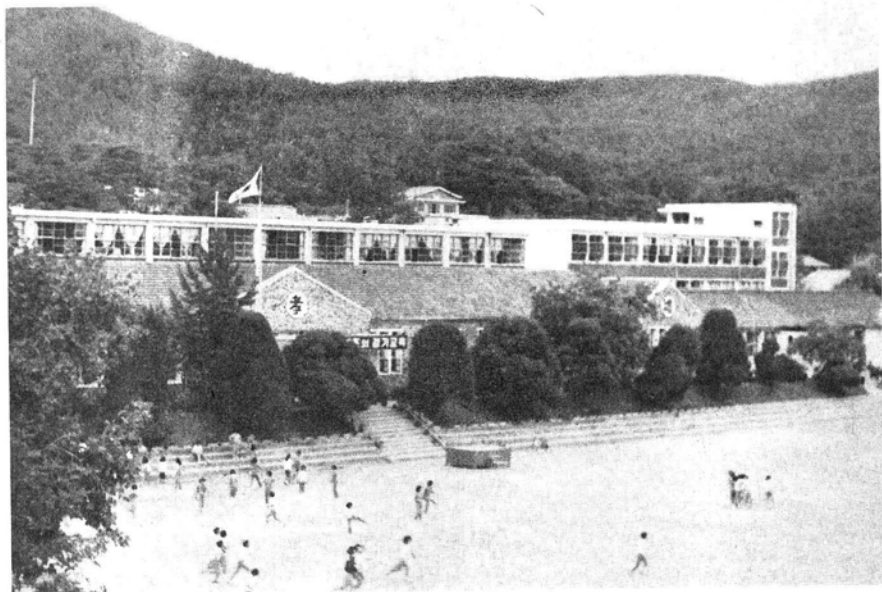


또 한 번 쓰러져가는
고즈넉한 시간이며
빛을 따라
목아픈 生命도
숨을 쉬리라.



그리고
어둠이 벗겨지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한 번 돌아올
生命을
꿈꾼다.

< 학교순례 >



1. 학 교 명 : 용인여자중학교
2. 학 교 장 : 양 승 대 (梁承大)
3.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군 김량장리 206번지
4. 연 혁 : ○ 1947. 7. 1 용인여자중학원 창설 신현정 원장 취임
○ 1948. 11. 3 용인여자중학교 설립인가(6 학급), 유 관희 교장 취임
○ 1952. 4. 13 용인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76. 3. 1 용인여자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85. 2. 25 제 35 회 졸업(졸업생수 총 6,921 명)
○ 1985. 3. 1 제 15 대 양승대 교장 취임
○ 1985. 3. 2 23 학급 편성(현 1,513 명)
5. 학교의 상징
 - 교 훈 : 성실, 명랑, 협동
 - 교 화 : 장미꽃
 - 교 목 : 향나무

6. 교육목표

1. 새역사 창조에 앞장서는 애국인 육성
2. 자주적 학습력을 지닌 실력인 육성
3. 사회복지 건설에 참여하는 협동인 육성
4. 탐구적이고 면학 정진하는 과학인 육성
5. 건전한 정신과 체력이 조화된 건강인 육성

7. 학교현황

학 생 현 황			졸업생 현황	교직원 현황
1학년	8학급	550명	35회 6,921명 (1985.2.15 현재)	교사 37명
2학년	8학급	520명		일반직 4명
3학년	7학급	443명		계 41명
계	23	1,513명		

8. 학교교육 현황

가. 학교 특색

- (1) 학년완성교육의 충실(교수·학습 성취 프로그램 작성 활용)
- (2) 국민정신교육 종합프로그램 운영(국민정신교육관 설치, 나의 관리 수첩 제작, 아침 명상의 시간 운영)
- (3) 체육지정 종목(배구) 운영
- (4) 과학실 및 어학실의 효율적 운영

나. 노력 중점

- (1) 학년별·교과별 학력책임 관리를 통한 학력 향상
- (2) 어학실 운영의 충실을 통한 생활 외국어 교육 강화
- (3) 기초체력 향상 및 체육지정 종목(배구)의 경기력 향상
- (4) 도서관 및 학급문고 운영개선을 통한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
- (5) 학생 복지시설 개선(급수시설, 온수공급, 도시락 보온시설)



海東産業株式会社 龍仁工場 全景

사훈

화성창

목실의



제조원

海東産業株式會社



판매원

주식회사 해동 스포츠

TEL. 273-6348~9

MAX-CARBON RODS

카아본로드 애호가를 위한 보급형 봉사품

MAX-CARBON™ 맥스카아본 시리즈



黑眞珠 시리즈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雪波 시리즈 (250, 300, 350)

雪峰 시리즈 (250, 300, 350)

金牌 시리즈 (300, 380, 460, 540)

해동인의 긍지

1. 자랑스러운 우리의 직장
2.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
3. 자랑스러운 우리의 능력

◆ 연 혁 ◆

- 1968. 11. 6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95 번지
해동공업사 설립
- 1975. 7. 1 해동산업주식회사로 법인등기
- 1975. 7. 10 고 박정희 대통령 내사 격려
- 1978. 11. 10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522 번지로 공장 이전(대지 3,500평)
- 1980. 8. 1 릴개발 착수
- 1980. 12. 1 제 17회 수출의 날 수출증대 표창(경기도 지사)
- 1981. 1. 4 해동 장학재단 설립
- 1981. 1. 30 공장새마을 우수업체 표창(재무부 장관)
- 1982. 9. 1 국제낙시 경기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 1983. 3. 3 세금납부 우수업체 표창(재무부 장관)
- 1983. 3. 3 동경지점 설립
- 1983. 3. 14 낙시업계 최초 Q마크 획득
(한국잡화검사소로부터 전품목 품질보증)
- 1983. 4. 23 국내 판매회사 해동스포츠 법인설립
- 1983. 12. 18 노사관계 우수업체 표창(노동부 장관)
- 1984. 9. 25 제 2 공장 설립(인천 5공단)
- 1985. 2. 9 소비자 보호를 위한 A/S실 운영
- 1985. 8. 1 가방사업부 신설

해동산업주식회사는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3,500여평의 대지위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로 연간 낙시대 2,400,000 set, 릴 600,000 set 를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낙시대 업계에서는 최신품 설비인 호브론기, 주조가공기, 개발용기, 검사측정기 등을 비치하고 초정밀하게 조립된 릴과 엑손 테스트기에 따른 완벽한 낙시대를 제조함으로써 낙시인으로 하여금 심신수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레저 산업의 선두 주자인 회사이다.

<기업탐방>

- 액손검사 : 휘어지는 상태와 강도
- 조력검사 : 대어의 고기가 당겼을 때의 낚시의 안전도
- 실지사용 검사 : 휘어지는 상태, 고기가 물었을때의 촉감, 실사용으로 제품의 문제점

릴 검사는,

- 회전내구성검사 : 회전시 무리가 없는가 여부 및 수명
- 벨 반 전 검 사 : 벨작동의 이상유무 및 수명
- 도급내식성검사 : 염수로 인한 부식성 여부
- 조력시험 검 사 : 고기가 당겼을 때의 안전도
- 외 관 검 사 : 형태검사

이와 같이 여러가지 검사로 우수한 카본 낚시대 및 카본 릴을 생산 국내에서 유일하게 Q마크(한국잡화검사소에서 전품목)를 획득한 기업이라고 자부하며 해동인의 긍지와 능력을 조화시킨 제품이 용인에서 생산 수출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여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낚시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국화 전시회

박 종 영

전시회를 할때마다 느끼는 당혹함이 있다. 점잖은 신사, 숙녀 혹은 부잣집 마님 차림의 여사님들, 전시 관람차 오신 분들이 “이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며 물어 온다. “진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 요” 하며 물어온다.

작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 이보다 난감한 일이 또 있겠는가?

“지도 모르겠어요” 멋지게 말하면 세상에 이런 엉터리 작가도 있나 하는 어이 없는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나 작품에 또다른 설명은 없다. 작품 그 자체가 이미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작품이라 고상한 말로 불러준다.

화술이 좋기로 어떻게 마음을 다 표현할 것이며, 음식요리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맛보기 전에야 어찌 맛을 알겠는가? 그림은 눈으로 듣고 눈으로 읽고 눈으로 맛보는 것이다. 맛을 볼 수 있지만 설명은 할 수 없는 것이 그림이라 한다. 진실로 좋은 작품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미로운 맛을 느낀다.

작품 중에는 견식이 많고 안목이 높은 사람만이 인정하는 작품이 있다 한다. 수준이 높은 작품이어서 수준이하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수준 이상과 이하를 가름 하는 기준의 선은 어디 있는가? 이것도 느낄 수는 있어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말 좋은 작품에는 수준 이상과 이하의 구별이 없다.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음악과 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야 말로 예술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목적은 너무 멀고 생활고로 인한 유혹은 너무나 집요하다. 그림은 내 생활의 원수일 때가 많고 그림은 내 삶의 전부일 때가 많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길도 나는 모른다. 남보다 잘 그리는 방법 역시 전혀 모른다. 작품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의 평가가 모여져서 확정 비슷한 것이 형성 되는가 싶다. 그 동안 우리는 국전과 신문, 방송 일반 공모전에 의하여 하루 아침에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고 내실이 충실치 못한 작가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단한 작가로 둔갑되는 것을 많이 본것 같다. 그러나 그림쟁이, 쟁이의 본질은 그게 아닐 것이다. 쟁이는 쟁이의 기질, 쟁이의 집념, 쟁이의 철학이 있어야 무엇이 됐든 알맹이가 영글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쯤은 될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어찌 다 작품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물며 모르고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림은 자기 자화상이며 자기 철학이다.

이제의 내마음 오늘의 내마음이 같을 수가 없듯이 날이 갈수록 화폭의 먹은 크게 번져가고 한쪽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街路名 創案의 始末書

李 仁 寧

금년초 郡 관계 실무계장으로부터 龍仁 邑地域에 대한 街路名을 창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로에 이름을 붙힌다는 일은 龍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더우기 후손에게 물려줄 무형의 유산이므로, 그 일을 내가 자청하고 나선다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도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알맞고, 역사성이 가미되어야 하며, 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작명(作名)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내 주제에 무슨 재주로 이 네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지명을 지어낸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안(案)이 나오는 대로 자문위원회, 지명(地名), 위원회를 거쳐 상부기관으로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농담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달리 알아볼 사람도 마땅치 않으니 머리를 짜 보라는 동료의 끈끈한 부탁을 딱이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마음약한 탓에 어물쩍 이를 수락하고 말았다.

가로명을 붙여야 하는 노선을 보니
〈제 1 노선〉 : 김량장리 4거리로부

터 군청앞을 지나 주공 아파트에 이르는 구간.

〈제 2 노선〉 : 김량장리 속칭 술막다리로부터 용인국교 용인여중 앞을 지나 역북리로 빠지는 일명 강변로에 해당하는 구간.

〈제 3 노선〉 : 김량장리 우회도로, 용인-안성 지방도 접합선으로 부터 역북리 제일약품(주) 앞에 이르는 구간.

〈제 4 노선〉 : 용인읍 무너미 고개의 이동면 경계로 부터 김량 4거리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TG에 이르는 구간.

이 구간을 누구나 알만하고 인상깊고, 의미 심장한 거리로 상징지을 수 있는 명칭을 창출 해야만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무를 마치후 이 노선들을 한번 씩 주행해 보았다.

그리고 밤샘을 하다시피 하여 노선 하나에 10개 정도의 각종 <이름>들을 붙여 보았다.

무려 40여개에 달하는 각종 후보명사(名詞)를 만들어보고 그 가운데 4가지를 선정하여 설명서를 붙였다.

그것을 이튿날 관계 계장에게 건네 주었다.

- 제 1 노선 : 국은로(菊隱路)
- 제 2 노선 : 용문로(龍門路)
- 제 3 노선 : 충현로(忠顯路)
- 제 4 노선 : 남이로(南怡路)

제 안 사 유

◇ 국은로(菊隱路)

〈국은〉은 순국열사 이한웅 선생의 호이다.

용인출신으로서 한일협약에 의한 나라의 주권이 상실 되었음을 비분강개한 나머지 지역 만리에서 자결하여 순국의 선봉이 되신분, 이분이 용인을 떠난후 고향이 되어 돌아온 길이므로, 후손된 도리로서 그의 애국충정을 기리고자 함이다.

◇ 용문로(龍門路)

용인 초등교육의 발상지,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나온 교육의 요람이다. 이 한 노선에 용인국교, 여중, 여고를 비롯 서용국교가 좌우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 길은 배움의 길이며 입신양명의 길이랄 수 있기 때문에 등용문(登龍門), 즉 뜻을 이루어 크게 영달 함을 뜻하는 문, 힘들지만 그곳을 지나면 길이 열린다고 일컬어지는 관문이라는 뜻을 원용하여 〈용문로〉라고 하였다.

◇ 충현로(忠顯路)

일직선으로 쭉 뻗어난 탄탄대로, 도약하는 군민의 기상을 상징하며 군민정신의 응집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 현충탑이 굽어보는 충성의 길이며, 우

리의 엄원이 성취되고 현달하는 지혜를 모아 전진해 나아가자는 뜻이다.

◇ 남이로(南怡路)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호칭 대장부— 이 한 수의 시로써 남아 다운 국광과 기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꽤남아.

27세때에 병조판서를 역임한 동량지재 였다는 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분이 용인출신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인연도 있고해서 이처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용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게 하고자 함.

대략 위와같은 의미에서의 제안사유를 달아 몇번이고 심사숙고, 몇몇 인사와 선배님들에게 자문까지 받는 등 꽤나 신중을 기해본 끝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다.

실무자도 만족한듯, 곧장 최종 결재권자의 재가를 거친 후 군정자문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 때에는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그중 한 두 분은 별도 전화까지 걸어 주면서 아주 적절하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도 들려 주었으므로 할 일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지명위원회라는 좁은문을 거쳐야만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좌초된 街路名

지명위원회 --- 나는 이 기구에 까지

는 않았으나 제안 사유를 설명해야 한
다기에 뒷자리를 차지했다.

전례로 보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예
상했던 회의 결과는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중의 한분은 이한웅 열사가 이 길
로 가지않고 탄길로 다녔다는 해괴한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 어째서 무관들
만 나열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더니만 이리저리 두드려서 흠집
을 내고 뺨질을 해 나아갔다.

제안 기관의 결재권자에 의해 재가된
최소한의 엄의도 존중되지 않았다.

영똥한 가로명이 메달을 차지하는가
하면 문자를 바꾸어 버려 일백팔십도
방향이 전환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金良의 텃세에 밀려난 烈士의 열

용인의 중심가, 그 좌우로 주요기관
이 자리잡고 은행등 상권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심장부 — 맥박이 고동치는
군민의 거리 —

여기 열사의 애국혼이 기러지기를 바
라던 착상이 무산되는 괴로운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金良의 유래가, 金良 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며, 그가 장사를 시작해서 장
터를 이루어 놓았음으로 그의 업적을
빼 놓아서는 안된다는 론지였다.

오직 김량장리란 지명을 낳게 하였다
는 인연, 그것 말고는 달리 보충될 사
유가 없음에도, 이분들은 별 의미없는
김량쪽에 표를 던졌음으로 일국의 열사

가 김량의 텃세에 밀려난 셈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 남이로 명명하려던가
로(街路)의 반을 전세내어 열사는 겨
우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발언권이 없었던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뿐이었다.

……김량장리치고 김량로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미 상실한 龍門路

남은 몇일을 두고 연구하고 그 나름
대로의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 이런
것을 각고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심혈
을 기우려 놓은 작품들이었다.

그것이 불과 단 몇분만에 주마간산
격으로 축적 요리되고 있었다.

앞서의 설명에서 처려 등용문을지나
등양각(騰陽閣)에 오르라는 의미에서
불 때 龍門이어야 하는데도 <용자는용
인의 두분자와 의기투합 하여 달리 이
의가 없고 문(門)자는 배우는 아이들에
의 의미라면 이를 문(文)자로 고치자>
는 제안이 있자 그러면 안된다는 내파
위의 설명은 참작의 여지도 없이 면전
에서 묵살된채 그것으로 가결되고 말
았다.

아— 후회스러운— 어째서 그 일을
내가 맡았던고? 차라리 나도 저분들
처럼 남이 해놓은 일이나 구경 했더라
면 얼마나 좋을까?

매사를 직관으로 처결 해가려는 그
자리가 형이하의 인생 무대인양 생각
되어 던고설 땅이 없는것 같았다.

나는 일순 그런 생각에 억눌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현
(忠顯)에 관해서도 메쓰가 가해지기 시
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충탑이 있는 앞길이
니 현충로(顯忠路)로 하는 것이 적당
치 않느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형이하의 무대가 아니라 사
각의 링에 오른 내가 보였다.

코로나 물린채 사정없이 난타당하여
그로키 상태에서 휘청거리는 처참한 물
골—. 나는 갑자기 무례방자 하게도
울분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다.

「아니? 충현과 현충도 구분이않되
십니까?」

.....?

.....?

무슨 주제에 그런말을 했을까?

실은 충현과 현충의 뜻이 어떻게 다
른지 나도 잘 모른다.

다만 현충은 선열들의 충성을 행적으
로 나타내 보인 과거완료형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충현은 그 반
대적 개념으로서 향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군민의 각오와 결의를 집약 시키
려는 의미로 풀이하고 싶었던 것이 제
안자의 심정이었을 뿐이었다.

덕분에 이것만은 바꾸고 옮기고 갈아
치우는 작업에서 제외되어 온전하게 되
었다.

용인 어머니 합창단원 모집

용인 어머니 합창단(단장 : 전 재선)에서는 주부들의 정서생활 함양의
일환으로 어머니 합창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이 있으신 주
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 집 인 원 : 다수

대 상 : 용인에 거주하는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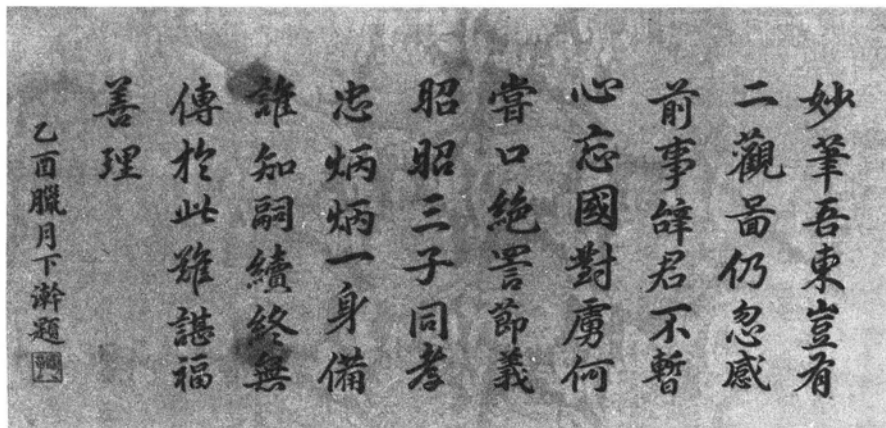
문 의 및
접 수 처 : 용인 문화원 전 화 : 2 ~ 2033

吳學士(達濟) 梅花圖(國立博物館所藏)

肅宗大王御製親筆 (숙종대왕의 어서와 친필)

妙筆吾東豈有二	묘한 筆法이 우리 東方에 어찌 둘이 있으랴
觀圖仍忽感前事	그림을 보니 이에 홀연히 전에 일이 감동되도다
辭君不暫心忘國	임금을 하직하면서도 잠시라도 나라를 잊지 않았으며
對虜何嘗口絕詈	오랑캐를 대하여 일찌기 꾸짖기를 그쳤으리요
節義昭昭三子同	節과 義는 밝고 밝아 세사람(三學士)이 같았고
孝忠炳炳一身備	孝와 忠은 빛나고 빛나 한몸에 갖추웠도다
誰知嗣續終無傳	누라서 사숙이 끊겨 전함이 없을줄 알았으리
於此難諶福善理	이에 착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하늘이치도 믿기어렵네.

乙酉臘月下澣題 一七〇五年 十二月 下旬에 題함. (肅宗三十一年)



忠烈公 吳達濟 梅花 (충열공 오달제 매화죽)

英祖大王御製 (영조대왕어제)

御詩續贊仍賜其孫大司成彦儒 임금님에 글을 이어 찬성하는 글을 지어 인하여 그의 후손 大司成彦儒에게 下賜하노라.



今日望拜緬憶昔年 금일에 절하고 바라보니, 아득히 옛적일이 생각나도다
 遙望中州深切惘然 멀리 중주를 바라보니, 창연함이 깊이 간절하다
 豈幸此辰得覽一簇 다행히 이때에 한폭의 簇圖를 얻어볼 수 있으니
 東閣一梅忠烈筆蹟 동각에 한폭 매화도는 충열공의 필적이로다

上有御詩追慕興嘆 그림위에 임금님의 시가 있으니 追慕되고 興嘆되도다
 韻律停久敬續以贊 韻律이 오래 머물렀음으로 공경하여 이어 贊하여
 樹忠何歲漢南夕雲 충성을 세운게 어느때인고 한남에 저녁구름이로다
 何以聊表特賜其孫 무엇으로써 에우라지 표할고, 특히 그 후손에게 내리노라

崇禎 紀元後 三丙子(一七五六) 英祖三十一年 仲冬에 忠烈公 吳達濟의 玄孫嘉
 善大夫行成均 館大司成臣吳彥儒 임금님에 하교를 받들어 공경하여 씀

吳學士公 略歷(오학사공 약력)

公의 諱는 達濟이고 本貫은 海州이다. 仁祖十二年 甲戌에 文科壯元하여 官
 至弘文館校理였다. 仁祖一四年(一六三六年) 丙子胡亂 當時에 主和派(항복을
 주장하는 자들)인 崔鳴吉, 金 瑬 等を 痛烈히 彈劾하는 疏를 여러번 올림으
 로 因하여 罷職되어 在家하던 중 王께서 南漢山城으로 播遷하시게 됨에 徒步
 로 護駕 隨行하여 끝끝내 斥和(降伏을 反對하고 싸우기를 주장)하였으나 結
 局 降伏하게 되자 王에 要求에 從하여 斥和者(항복을 반대한자) 代表者
 (三學士 洪翼漢, 尹集, 吳達濟) 三人을 淸陣으로 押送되어 瀋陽까지 護送되
 었으며, 胡王에 百方懷誘에도 不服하고 온갖 協迫에도 不屈 끝내 節死하였다.
 (當時公年 二十九歲) 領議政에 追贈되고 忠烈公에 諡號를 받았으며, 南漢山
 城內에 顯節祠 扶餘에(舊鴻山) 彰烈祠, 振威에 褒義祠, 榮川에 壯岩書院 松
 炭山에 忠義閣이 있다. 그리고 中國奉天(瀋陽)에 三韓山斗碑가 있는데 이 碑
 는 中國人들이 三學士에 忠節을 讚揚하여 建立한 碑이다.

資料提供 吳 晶 根

忠 信 歌

君臣有義 일루미니
 君父업시 다투기니
 治而教之 하여씨니
 以德調業 大忠人은
 以是諫非 흥던이논
 그만못흥 蜂蟻들도
 忠君흥번 ㅎ읍시다
 輔之翼之 禮을줍아
 退思補過 흥엇다가
 諂諛逢逝 忠아닌가
 不變松柏 구둔마음
 砲聲如雷 하더라도
 赴湯蹈火 흥지라도
 예전忠臣 만컨마는
 閔桂庭의 血竹느서
 崔勉菴의 義虹빛겨
 엇지 하여 姦細輩는
 文明中華 엇지흥고
 어화우리 學徒드라
 傳村四方 흥더리도
 萬仁遊覽 하여다가
 爲相爲卿 自任 하여
 垂拱平章 우리皇帝
 大韓獨立 절로되지
 天下之人 引領 하니
 忠君歌를 高唱 하여

忠臣흥번 하여보세
 忠君흥번 하여보세
 忠君흥번 하여보세
 伊尹周公 그아닌가
 比于王蠋 그아닌가
 君臣之義 分明 흥네
 어화 우리同志들으
 採順其美 하여보세
 匡求其惡 하여보세
 面折廷爭 하여보세
 立節死義 하여보세
 戰陳無勇 孝아닐시
 有進無退 하여보세
 大韓節死 빛느도다
 四時一色 푸르렀고
 白日青天 늬피섯다
 貪權勢樂 흥려다가
 列疆奴隸 되엇는가
 新舊學問 심씨설양
 不辱業箇 하여보세
 器機製造 發達 흥세
 事君澤民 하여보세
 耕田鑿井 우리百姓
 太平乾坤 이아닌가
 願立願耕 말일손가
 一國同胞 興起 흥게

孝 親 歌

語語語語 同胞드라
 父母恩功 生覺호면
 非父母之 血肉이면
 附我鞠我 하섯시니
 父母功德 갑즈호면
 天地間에 重호기는
 泰山갓치 늑은恩功
 父母恩功 生覺호니
 人之異於 禽獸者是
 反哺호던 彼鳥也여
 三千之罪 許多컨만
 嗟我同志 同胞드라
 大舜曾子 본을바다
 昏定晨省 호려니와
 養心志도 호려니와
 陸績懷橘도 호여보며
 孟宗竹筍 王祥鯉어
 萬物之衆 最貴로셔
 不忘호세 不忘호세

孝親一歌 드러보소
 仰心이고 嘆息일시
 이니一身 何處生고
 劬勞心力 호엇도다
 昇天이 罔極도다
 父母박게 더重호는
 一朝一夕 갑흘손가
 사러生前 갑흘손가
 五倫三綱 잇심일세
 羽族三千 孝鳥로다
 罪莫大於 不孝일시
 至誠孝親 호여불가
 父母生前 孝誠호세
 冬溫夏淸 호여불가
 養口體도 아니할가
 子路負朱 하여보세
 出天之孝 分明토다
 不如鳥之 反哺乎아
 孝視二字 不忘호세

옛날 옛적에

옛 「場」

박민웅

龍仁 場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매달 5일, 15일 순으로 5일마다 어김없이 서고있다.

옛날 場하면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식이나 시집간 딸의 안부와 시집간 딸이 친정집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붙이기도 하며 시골 아낙들의 나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친지나 친구들도 만나고 사돈도 만나는 정감어린 장소이기도 하였다. 서산에 해가 기울 무렵이면 파장이되어 하루종일 왁자 지껄하던 장사꾼들의 큰소리도 어느새 사라지고 아낙네들의 짜지는 소리도 조용하게 된다. 파장과 함께 오랫동안 친구, 친지와 사돈 등이 만나면 의례적으로 탁배기 한잔은 빼놓을 수 없게된다. 걸러 띤 점심을 주막에서 탁배기 한잔으로 속을 달래며 그간 지난 이야기며 농사 이야기, 거기다 곁들여 치너, 총각 중매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제가 된다.

이렇듯 場터는 고요한데 반해 주막이 시끄럽기 마련이다. 주막이야기가 나왔으니 술 때문에 빚어진 옛날 해학적인 인아가기가 있다.

옛날에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양 사돈이 각기 암소와 황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암소 기르던 사돈은 황소로 개비하러 하고, 황소를 기르던 사돈은 암소로 개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시장에 들러 마음에 드는 소를 고르려고 기웃 기웃하다 양 사돈이 우연히 만났다. 오랫동안 만난 양사돈, 집안 안부부터 묻는다.

「사돈 오랜만이외다. 집안 두루 평안 하오신지요?」

「염려 지덕에 아무일 없이 잘 있습니다만, 사돈네도 별고 없으신지요?」

「예,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우시장에 어떤 일이요?」

「예, 저는 집에서 암소만 수년간 길렀드니 이제 싫증이 나서 씨익 씨익 한 숫놈으로 길러 볼까하여 우시장에 들렀소이다」하며

「나야 그렇지만 사돈은 어찌 우시장에 들리셨오이까?」

「저도, 황소를 오랫동안 먹이든 차에 송아지를 내어 볼까하여 암소로 개비하려고 왔소이다.」

「어허, 그러시오? 그거 아주 잘 되었소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하며 제안을 하는데.

「우리소는 송아지를 잘 낳는 암소이니 사돈께서 데리고 가시고, 사돈네 소는



숫놈이니 제가 데리고 가는것이 어떻소이까?’ 하니,

「그것참 좋은 말씀이시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하며 흥정이 간단히 이루어졌다. 흥정도 잘되고 양 사돈이 오랫동안 만났으니 탁배기 한잔쯤 뒤 따를 법이 아니겠는가.

「사돈! 소 흥정도 잘 되고 사돈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으니 주막에 가서 탁배기 한잔하며 그동안 격조했던 회포나 풀어 봅시다」며 양사돈은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에 들어서 소는 대충 불들어 매 놓고

「여보 주모, 여기 안주 꾸밈하게 하고 막걸리 좀 넉넉히 주시오」하며 좌정을 한 양사돈은 머느리와 사위 이야기며 안사돈 안부, 집안 이야기 등 시간 가는줄 모르고 주거니 받거니 한참 마시다 보니 술은 거나 한테다 해는 서산에 떨어진지 오래고 남은건 작별 뿐이다.

「사돈! 오늘 장에 나와 사돈 만나 마음에 드는소 고르고 기분 좋게 술이 거나하니 오늘 장에 나오길 잘했소이다.」

「피차 일반이외다」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돈! 너무 늦었소이다. 다음에 만납시다」며 헤어져 서로 바꾼 소를 끌고 각기 집으로 향하던 중, 취기는 점점 더하고 몸은 말을 듣지않아 가누기가 힘들어 어찌 할바를 모르다가

「에라 모르겠다」며 소를 집어 땀냈다. 이쪽 사돈이 그럴진데 저쪽 사돈도 뻔할 일이 아니겠는가? 몸을 소에게 맡기고 떨어질세라 양사돈 소만 바짝 붙잡고 소가 가는데로 끄덕 끄덕 갔는데, 이 소들은 하도 오랫동안 길렀는지라 주인과 장에도 여러번 다녀보아 집에 가는 길은 익숙하여 각기 자기 집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다.

소를 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에 당도하여 소는 외양간에 되는 대로 메어두고 무조건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이 자는 이불속으로 쭈시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불씨가 되었다.

부인 생각은 남편이 장에 나가 약주가 과하여 그러려니 하며 무심코 잠을 잤는데 새벽녘이 되어 사돈양반, 조갈이 나서 물을 떠오라고 부인을 깨우니, 부인은 무심결에 부시시 일어나 남편이려니 하고 보니 남의 남자가 아닌가?

아연 실색하며 기겁을 하며 놀라는데 놀란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가만히 보니 안사돈이라. 밤새 안사돈과 같은 이불속에서 잠을 잔것이 아닌가?

「이런 망발이 어디있나」하며 지난 밤 기억을 더듬으니 소를 바꾸어 가지고 사돈과 주막에서 먹고 취해 소를 집어 탄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으니, 「아뿔사」하며 빌떡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소고 무어고 생각할 겨를없이 대문을 박차고 나 살려라며 집으로 출행량을 했던것.



이쪽은 그렇다손치고 저쪽은 또 어찌 되었을까.....

요즘은 市場에 나가보면 수박, 참외, 딸기 등 여름 과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다.

겨울 장날에 누구나 場에 나가보면 눈속에 좌판을 벌려놓고 여름 과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눈속에 여름 과일이라! 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옛날에는 감히, 아니 비닐이 나오기 전에는 여름에 生産되는 수박, 참외, 오이, 딸기 등은 겨울에 볼 수도 없었거니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눈속의 여름과일을 보고 언뜻 어린학동의 기지로 곤궁에 처해있는 아버지를 살린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이방이 꽤나 싫었든지, 아니면 골려주려고 그랬든지 여하튼.....

한 겨울에 이방에게 하는 말이 「여 보아라 이방! 내가 딸기가 먹고 싶으니 산에가서 딸기를 따다 대령토록 하여라」 분부하니, 이방은 사또 분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 「사또 지금은 한 겨울이온데 어디가서 산딸기를 따오랍시는 분부 이시옵니까?」하며 부당하다는 투로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하니, 사또 성을 내며 「네 이놈 감히 누구 명이라고 분부를 거역하려 하느냐?」「몇일 말미를 줄터인즉 간만에 딸기를 따 오테, 따오지 못하면 엄벌을 내리리라」하며 엄하게 나오자 이방은 사또 분부가 워낙 지엄한지라 일단 물러나 난감해 하며 퇴청을 하여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벼란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이 「영감! 일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아무일도 아니오」하며 여전히 생으로 병을 앓고 있었다.

이방에게는 서당에 다니는 나이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다.

이 어린 아들은 남달리 영리한 학동이었다.

어린 아들이 누워 앓고있는 아버지를 보다 못하여 「아버님!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십니까?」하고 물어도 「아니다. 어린 네가 알 일이 아니니 서당에 가서 글이나 열심히 읽도록 하여라」 할 뿐이다.

어린 자식에게 말을 해보았자 별 뽀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히 부담만 주는것 같아 말을 흐린 것이다. 워낙 영리한 아이인지라 그래도 꼬치 꼬치 묻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또가 분부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또가 분부한 기일이 바로 내일인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 큰일이구나」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이에 듣고만 있던 어린 자식은 한참 곰곰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님 그 일이라면 조금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사또님께 일이 잘되도록 여쭙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얼떨떨해 하며, 어른인 내가 속수무책인 데 어린 자식놈이 걱정말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그 이튿날 어린 이방의 아들이 관가를 찾아가 사또 뵙기를 청하였다.

사또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며 나를 보자는 이유가 무어냐」 물으니 「저는 이방 아무개의 자식이온데 사또께 읍서 분부하신 딸기건 때문에 아버님을 대신 하여 사또님 뵙기를 청하였나이다」하며 당돌하리 만큼 자세하나 흐트러짐 없이 나이답지 않게 뉘뉘하게 대답을 하니 사또가 예사 아이가 아니로구나 생각하며 「그래 네 아버지는 내가 분부한 딸기를 따 왔드냐?」하니 「예, 우리 아버님께 읍서 딸기를 따라 산에 갔다가 원래 산 딸기 많은 곳에는 뱀이 많은 지라 뱀에게 뒹 꿈치를 물려 뱀독이 온몸에 퍼져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사또 기가 막혔음인지 「네 이놈 어린 놈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을 아뢰느냐? 그래 이 한겨울에 무슨 뱀이 있으며 네 아비가 뱀에 물렸다고 하느냐. 말이나 되는 소리냐」 「썩 물려나서 네 아버를 대령토록 해라. 엄벌을 내리리라」하니 어린 학동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사또께 읍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또님께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읍니다.」 「또 무슨 할말이 있느냐. 어서 말을 해보아라.」 「그럼 사또님은 한겨울에 번연히 산 딸기가 없는줄 아시면서 우리 아버님께 딸기를 따오라고 분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니, 그제야 사또 생각에 잠기는듯 싶더니 혼잣말로 「어허 이방은 참으로 똑똑한 자식을 두었구나」하며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그 아이의 기지와 영리함을 칭찬하며 상을 후히 내리고 이방을 항상 가까이 하였다는 이야기다.



용인원정소계(龍仁園停小憩)

洪 順 錫

지난 2집에 처음으로 김수녕(金壽寧)의 신정기(新亭記)를 소개한 바 있다. 그 뒷편으로 소개하는 용인원정소계는 김 종직(金宗直)의 작품으로 역시 동문선에 전한다. 이 시를 지은 김 종직은 조선조 사림파 문인들의 거두로, 호가 점필재(佔畢齋), 자는 계온(季溫),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연산조 때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吊義帝文)을 지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일평생 덕행, 문장, 정치 세가지 일을 함께 업수한 유학자요 문인이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는 오언고시로, 김종직이 지방에 다녀오면서 상경하는 도중, 용인원정에 잠시 쉬면서 지은 것이다.

이리저리 몇백날을 달리다가	驅馳數百日
예와서 잠시 만나절을 쉬네	半日聊息駕
아롱진 나무 그늘 아래,	玲瓏樹陰中
시원한 바람 부는 이 정자	愛此清風樹
사군은 일찍 서울 가고	使君早飛鳶
아전들이 제법 날 맞아주네	殘吏能迎迓
우뚝우뚝 서있는 만줄기 연꽃	亭亭荷萬柄
술병에 향내가 풍겨 오는데	饔飧襲水磨
피라미 놀다가 퍼뜩 뛰어오르니	小魚游且跳
부평이 잠깐새 금이 가누나	浮萍暫成鱗
책상을 의지하여 낮잠이 드니	隱几正熟睡
산새들이 아래위서 울어 대고	山鳥鳴上下
석양이 앞내에 기울었는데	夕陽在前川
행인들은 아직도 길을 가고 있네	行人猶來舍
뉘라서 알았으리, 내 여기 와서	誰知闕輔地
한동안 여가를 얻을 줄이야	偷此一餉暇
갓을 쓰고 다시 시를 읊조리나니	岸巾更浩吟
야경꾼이 와서 밤을 알리네.	干掇來警夜

지난번에 소개한 신정기에서 용인원정의 내력을 살필 수 있었다면, 위의 시에서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오가는 시인 묵객들이 여기에 와 쉬면서 수많은 글을 남겼음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언고시의 비교적 짧은 시

구로도 정자 주변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나무 틈새로 햇살이 비쳐진 그늘 아래에 위치한 정자, 그런가 하면 사방 막힌 곳이 없어 항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었다. 정자 밑에 파놓은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하고 그 속을 피라미들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부평 사이를 지나가는 피라미의 움직임이 눈에 선할 정도로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게다가 멀리 않은 산에선 산새들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 울고 있다.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까이 시내가 있어 오가는 이의 땀방울을 식혀주고 있다. 이같은 정경에 석양까지 비쳐져 있다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분주하게 떠돌아 다니다 이 곳에 와서 머문 김 중직은 한가로움을 마음껏 즐길랑 밤이 와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망중한(忙中閑)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길가는 이를 위해 세워 놓은 정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주변의 경관은过客들의 눈길을 끌었음을 위의 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객을 맞이하는 아전의 따사로운 정에서도 우리 용인 사람의 인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过客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를 남기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 정자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다. 단지 이 곳을 지나던 시인들의 시편 속에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쉬운 것은 이 정자가 어느 곳에 있었든가 조차 알 수 없어 다시 손볼 수 없다는 점이다.

地名由來

李仁寧

◆ 豊徳에서 오신다는 豊徳來

수지면 풍덕천리(豊徳川里)는 본시 풍덕래(豊徳來)라고 하던 곳이다.

지금도 일부에서 풍덕래 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이를 풀이 하면 <덕이 크신 분이(풍덕에서) 오신다>는 뜻으로써 포은 선생의 묘소를 용인에 모시게 된 기연을 맺은 지명이다.

포은 선생이 선죽교에서 피살된 후 경기도 풍덕군에 일시 평장 되었다가 후에 선생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묘코자 하였다.

그 면례(緇禮) 행렬이 수지면 풍덕래에 이르자 행상 앞에 세웠던 명정(命旌)이 바람에 떠서 모현면 능원리지금의 선생 묘소 위치에 떨어져 그 자리에 장례를 모셨기로 용인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에 선생의 유해를 두게 된 것이다.

풍덕에서 오신다는 우연치 않은 지명대로 선생의 면례 행렬을 맞아 멈추게 하였다.

1914년 지명표기 작업당시 풍덕래(來)의 래(來)자를 내(川)자로 바꾸고 이를 천으로 음역하여 지금의 풍덕천(豊徳川)이 되었다.

◆ 해 끝은 화약골

용인을 김량장리와 유방리를 경계하

는 산협, 이곳을 <해끝>, 또는 <햇끝>이라고 부른다.

이 지명이 생긴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 하루는 왜적이 용인의 금령(金嶺)에 대오둔적(大廳屯賊) 하고 크게 약탈을 했다.

이때 용인으로 부터 일사(一舍)^{*}의 거리에 위치한 진위현에서는 의병장 「원연(元堧)」이 창의부난(倡義赴難), 용인으로 진격하고 적을 유인키 위해 날쌌던 기병을 추려 적진을 돌파한 다음이 골짜기를 치달아 산 마루까지 올라갔다.

수 많은 왜적이 골짜기로 몰려오자 방포 소리가 천지를 뒤집더니 입구가 막히고 염초에 섞인 화약의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적을 휩쓸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원연」의 기병이 되돌아 내달으면서 좌우 협공하여 적의 보급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얻었다.

이 공으로 원 면은 연기군수로 제수 받아 선치 하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화약골>이라고 불렀던 것이 점차 변형되어 오늘의 <해 끝>이 되었다.(原州元氏墓碣銘)

*) 一舍 : 30 리

◇ 오방난골은 나한에서 유래

토속신앙 중에는 방위신(方位神) 이라는게 있다.

즉 동방청제신장, 서방백제신장, 남방홍제신장, 북방흑제신장, 중앙황제신장이 그것이며 중앙신장이 대장신이다.

이를 5방신 이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지명으로써 <오방난골>이라고 하는 곳이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에 있으나 기실 오방신과는 무관하다.

이곳에는 박곡사지(朴谷寺址)로 불리우는 신라때의 절터가 있다.

전해오는 말로는 임진왜란때 소실된 후 불상은 모두 도난 당했거나 불탔으나 나한전(羅漢殿)에 안치되었던 5백의 나한군(羅漢群)은 땅에 묻히기도 하고 더러는 파손된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근을 지칭할 때 <오백나한골>이라고 한 것으로써 오백이 → <오방>으로, <나한>의 두 소리가 합성되어 <난>이 되었을 뿐이다.

◇ 사직골

구성면 마북리 민영환 선생 묘소이래

로부터 동쪽으로 마을과의 중간쯤 되는 곳을 <사직골> 또는 <사지골>이라고 부른다.

이는 용인현 서쪽 1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직단(社稷壇) 신실(神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백성은 땅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음으로 옛부터 중국의 천자나 제후도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모두 사직단을 만들고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비는 제를 올렸다.

즉 사(社)는 토지신을 뜻하며 직(稷)은 곡신(穀神)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신라 선덕왕이 783년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으며,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고려는 성종, 조선 조에서는 이태조가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를 지냈다.

이러한 사직단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도 그 단(壇)이 있어서 수령과 방백이 도입할 때 먼저 그 지방의 토지와 곡신에게 제를 지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지명이 내사면 양자에도 있으나 그 유래는 마북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맹 호 도 (60 호)

동양화가 박 종 용

— 약 력 —

- 한양대
- 신라미술대전 입선
- 경남도전 특선
- 한국미술대전 입선
- '85 한국미술대전 특선
- 마산·포항·울산·수원 개인전



모 범 학 생

모현중 3학년 박 용 익

「박 용익」 학생은 모현중학교를 1983년도에 1등으로 입학하여 교직원들의 성금으로 만든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학급 반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총학년 231명 중에 1등을 하였으며 2학년 때에도 우등을 하여 84년도 특대생으로 장학금을 받은바 있고, 3학년 1학기에도 모현중학교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5월 3일에는 대한교련회장으로부터 모범 청소년으로 표창장을 받았으며 또한 새세대 육영회 장학금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박 용익」 학생은 1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현재 모현면 일산리 116번지에서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머니(권 순란 여사 52세)와 형(박 용연 19세)을 도와 학교에서는 우등생이며 가정에서는 효도하는 학생으로 주위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간에 칭송이 자자하다.

생활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치 못하나 가정은 화목하여 항상 화기에 애한 가운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새세대 육영회 회장 이신 영무인으로부터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받아 예금을 하여 밝은 앞날을 바라보며 정진하고 있다.

새 경기도민상 시상

새 경기도민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덕망이 있으며 군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10월 5일 용인 군민의 날에 부문별로 새 경기도민상을 시상한다. 부문별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 새마을운동 부문 : 신 현배(원삼면 미평리)
- 소득증대 부문 : 고 병욱(내사면 정수리)
- 인보복지 부문 : 김 성복(남사면 방아리)
- 지역개발 부문 : 김 현준(용인을 마평리)
- 사회정화 부문 : 정 운영(용인을 김량장리)
- 보건향상 부문 : 진 성천(남사면 월암리)
- 문화예술진흥 부문 : 박 민웅(용인을 김량장리)
- 체육진흥 부문 : 김 정근(용인을 김량장리)
- 치안행정 부문 : 최 준권(남사면 봉무리)
- 대화행정 부문 : 이 영우(용인을 역북리)

저축글짓기 및 포스터그리기대회

용인군 저축추진협의회는 1985년 9월 24일 용인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저축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에 「한 정수」 농협 중앙회 용인군 지부장의 계몽 강연과 영화 상영이 있었으며 태성고등학교 이 강수 선생은 심사평에서 수상하지 못한 작품도 매우 수준이 높았다고 차후부터는 가작이나 장려상등 수상 부문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글짓기부 수상자

- | | |
|---------|----------------------|
| 초등부 1등 | 신갈국민학교 제 6학년 박 미 현 |
| | “동전이 안겨준 보람” |
| 2등 | 용인국민학교 제 6학년 박 창 균 |
| | “돼지 저금통과의 약속” |
| 3등 | 서흥국민학교 제 6학년 김 영 애 |
| | “저축세계 제 1위는 우리의 것이다” |
| 중고등부 1등 | 신갈중학교 제 3학년 신 미 라 |
| | “현명한 미래의 생활” |
| 2등 | 백암종합고등학교 제 2학년 김 효 수 |
| | “나의 작은 사랑, 나의 부강” |
| 3등 | 용인여자고등학교 제 2학년 이 진 주 |
| | “저축! 잊고 있었는가?” |

○ 포스터부문 수상자

- | | |
|---------|---------------------|
| 초등부 1등 | 서흥국민학교 제 6학년 조 은 화 |
| 2등 | 용천국민학교 제 5학년 김 진 현 |
| 3등 | 모현국민학교 제 6학년 정 유 정 |
| 중고등부 1등 | 태성고등학교 제 2학년 이 정 인 |
| 2등 | 용인여자중학교 제 3학년 김 향 진 |
| 3등 | 태성중학교 제 3학년 남 보 현 |

기흥면 읍으로 승격

용인군 기흥면이 1985년 10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되었다.
기흥읍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기흥읍 연혁
 - 1914년 기곡면과 구흥면을 폐합, 기흥면으로 개칭 11개 법정리로 구성
 - 1985. 6. 1 32개 행정리로 조정
 - 1985. 10. 1 대통령령 제 11772 호로 읍 승격
2. 가구 및 인구
 - 가 구 : 84년 10월 1일 현재 5,471 가구
 - 인 구 : // 24,656 명
3. 행정구역
 - 법정리 : 11 개리
 - 행정리 : 32 개리
 - 반 수 : 162 개반
 - 자연부락 : 26 개부락
4. 지역특성
 - 교통의 요충지

고속도 4.2 km	지방도 11.5 km
국 도 7.5 km	군 도 4.1 km
 - 관광 위락지역 : 민속촌, 골프장 3개소, 수영장 2개소
 - 교육 및 공업지역
 - 대학 3개교, 연수기관 3개소, 고교 1개교, 중학 1개교,
 - 국교 3개교, 기업체 69업체

한국청소년연맹 용인지역 단원연합체육대회 개최

한국 청소년연맹 용인지역 단원들은 지난 9월 22일 용인상고 교정에서 「홍기순」 용인지역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 학교 지도교사 10명, 7개 초·중·고교 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회 용인지역 단원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응변, 백일장, 친교 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고, 연맹이념을 실천하며 같은 지역 사회인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행한 행사로서 지역단위 청소년 문화의 새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순정(柳順汀) 초상

조선 초기의 명신. 字는 지옹(智翁). 시호(諡號)는 문성(文成)이다.

성희안, 박원종 등과 함께 中宗反政을 이르켜 정국공신이 되고, 청원부원군에 피봉되었다.

이 초상은 모현면 일산리 거주 19대 손인 유태홍씨家廟에 櫃藏(櫃藏)되어 있다.

초상 상단에는 篆書로〈靖國功臣 領議政 成烈 柳公遺像〉이라고 묵서 되었고 또 우변에는 〈中宗祖 靖國元勳 領議政 靑川府院君 改諡 文成柳公 緯順汀 字智翁遺像〉이라는 두개의 기록이 있다.

또 좌변에는 좌의정 金尙憲의 5행 찬문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송정기원(崇禎紀元) 再甲申後歲 庚子 九代孫 綏 敬書〉라는 銘文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김상헌의 발문을 9대손 유(綏)가 追書 한 것임이 확실시된다.

全身交椅座像이며 左顔七分面像이다.

烏紗帽와 紗帽角은 조선 초기의 帽制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靑袍團領의 공작 흉배는 金泥 바탕위에 線描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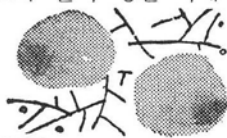
이 초상은 그가 領議政으로 있을때(中宗 7년) 묘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하세하자 生前에 받았던 「靖國功臣」의 훈작이 死後에 「靖國元勳」으로 높혀지면서 처음 시호인 「成烈」이 「文成」으로 개시(改諡)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초상은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초기 작품으로써의 회귀분일 뿐만이 아니라 画格이나 画樣이 時代性을 잘 반영하고 있어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寧).

편집후기

-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 풍년을 구가하는 농악에 어울려져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너울거리고 때맞추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팔월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는 못 사람들의 밝은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인다.
-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풍성한 때에 용구문화 제 4호를 발간하게되어 편집위원 모두의 마음도 또한 풍성하기만 하다.
- 특히 이번 호에는 새롭게 포토 에세이가 게재되고 「용구문단」의 시와 수필 부분의 참여 폭을 넓혀 수록하였으며, 또한 용구문화 편집을 위해 향토문화 연구위원과 문예진흥위원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어 다시한번 위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 용구문화의 발간되는 횟수가 거듭할 수록 좀더 잘 읽어보려는 마음이 앞서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군민들의 참여폭을 넓힘과 아울러 향시 문화원을 개방,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용구문화」란 꿈나무를 많은 성원과 격려 속에 크게 가꿀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雄〉



용 구 문 화 제 4 호

1985년 9월 25일 인쇄

1985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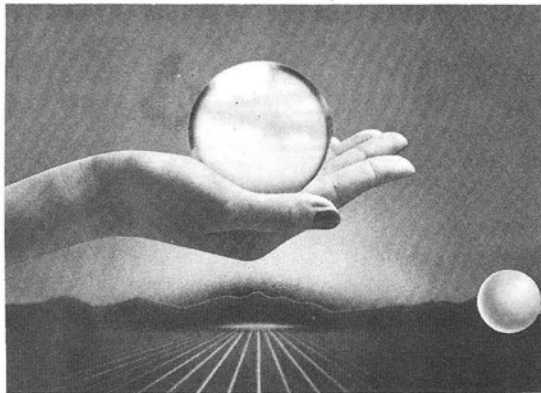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편집위원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6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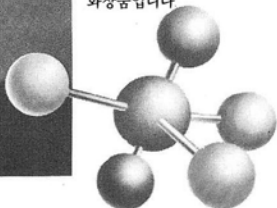
이 책은 한국문화에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바이오란?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있는 바이오는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의 준말로 생명력 있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바이오 화장품은 21세기의 혁신기술이라고 할수있는 유전공학에 입각하여 깨끗한 자연 원료와 생명력 있는 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시켜 피부조직활성화와 바란스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최고급 화장품입니다.



품질에서 앞서가는
 **한국화장품(주)**

랑 콤 용인대리점
 슈 단 학

代表 金 益 鎮

용인군 용인읍 김양장리133-31
 ☎ 2-3170번

